



강가서 태어난 '동자승'

태고적, 한강의 큰 바위 속에 동자승 한명이 살았나 보다. 그 후 동자는 오랜 세월 강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오다 어느 날 부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남한강에서 채취한 자연석. 높이 40cm, 무게 12kg. (김수영 시 소장)

■광주 도자엑스포에 가면

蓮소재 茶器 '눈길'

"조형적인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생활에 필요한 다구의 기능을 살리는데 초점을 두고 작업에 임합니다."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경기도세계도자엑스포에 연꽃과 연잎, 연밥을 소재로 한 다구와 다완, 찻상 등 20여점의 도예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도예가 신현철 씨의 말이다. 연잎의 부드러운 곡선을 찻잔에 그대로 표현해 내고, 연밥과 겹겹 연꽃잎의 모양을 찻주전자에 응용한 작품들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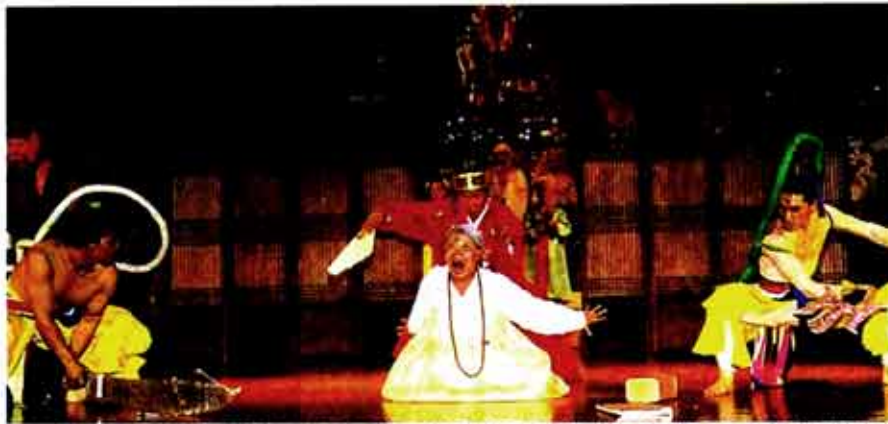
신 씨는 전통기법을 그대로 살리는 한편 도자예술에 새로운 조형기법을 시도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태화산에 올라가 절선 수련을 하며, 마음을 비우고 작품에 매진한다는 신 씨는 "연꽃은 불연이고, 자연의 소재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며 독창적인 도예작품을 선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씨의 작품은 2001 세계도자엑스포 광주 현장 B동 314호 상설관에 마련된 차실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은자 기자

연희단 거리패 50명 '무대'

선망부모와 누대조상들의 현도를 기원하는 우란분절을 맞아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극화한 연극 '목련존자'가 무대에 올려진다. 오는 26일과 27일 저녁 8시 두 차례 부산 삼광사 지관전 불교문화회관에서 선보이는 연극 '목련존자'는 삼광사가 직접 기획, 제작하고 연출가 이운택 씨가 연출과 구성을 맡은 작품으로 부처님의 십대제자 가운데 신통제일로 꼽히는 목련존자가 아귀도에 떨어져 모진 고생을 하고 있는 어머니 형제 부인을 구해내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극이 전개된다.



연극 '목련존자'는 연출가 이운택 씨가 연출을 맡고, 또한 그가 이끄는 연희단 거리패의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부산 삼광사, 우란분절기념 연극 공연 26·27일

목련존자의 효심 '감동'

삼광사에서 초연되는 이 연극은 문화예술 형식으로 포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경 속에 나타난 목련존자의 효심을 극화 하고 있다. 연극적 감동과 함께 경전 속에 담긴 진리의 세계를 생생하게 되살려낸다는 것이 연극 '목련존자'가 추구하는 바다.

연출가 이운택 씨가 이끄는 연희단 거리패의 배우 50여명이 참여하는 이 연극은, 목련존자(김경식 분)와 그의

어머니 형제 부인(정동숙 분)을 중심으로 등장시키고, 석가모니(안관영 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불법을 전하게 된다. 또한 부처님의 세계와 중생계를 화려한 조명, 레이저 빔 등 특수효과를 통해 전달하면서 시공을 뛰어 넘어 전해지고 있는 목련존자의 효심을 현대인들에게 전한다.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불법의 깊은 가르침을, 이

아가 있고 감동이 있는 연극으로 전달하면 불자들의 마음에 더욱 오래 남을 수 있는 포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연희단 거리패를 초청, 이번 연극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공연의 의의를 밝혔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인도 마갈타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 연극에서 목련존자는 형제 부인의 어려움과 사탕 생활을 보여주며 형제 부인을 통해 현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되짚어 나가게 한다. 이처럼 연극 '목련존자'는 경전 속에 나타나는 목련존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란분절의 참다운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인에게 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삼광사는 한어를 밤의 연극 공연과 함께 24일 까지 67점의 서화작품을 전시하는 제 1회 삼광사 서화 전시회를 마련, 문화 예술의 향연에 불자들을 초대한다. 0511808-7111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ista.com

문화단신

목야박물관 '한글 새김전'

한글을 주제로 한 다양한 조형세계를 감상해 볼 수 있는 제2회 한글 새김전'이 9월 18일까지 경기도 여주 목야박물관에서 열린다.

나무속에 깎아넣어 있는 원초적 생명력을 표현한 조각작품 '한글의 원형을 찾아서'를 비롯해 회화, 조각, 도자,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18명 작가들이 한글의 조형미를 한껏 살린 신작을 선보인다. 0311885-9952-4

능화스님 영산재 사진집 배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능화 스님(불교무용연구회 소장)이 영산재의 백미라 할 수 있는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을 사진작품으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모두 8매로 구성된 이 사진집에는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춤에 대한 설명도 담아 이해를 돕는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우송해 준다. 주소는 www.buddhistdancing.or.kr



남궁산 '생명' 연작 판화전

자연과 생명에 대한 예찬을 아름다운 다색목판화로 표현한 화가 남궁산 씨의 '생명, 그 나무에 새긴 노래' 판화전이 9월 16일까지 서울 인사동 학교재 회관에서 열린다.

남 씨는 삶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거기에서 생명의 소리와 이미지를 포착했다. 까치, 개구리, 소나무, 매화, 솜대, 나비, 나팔꽃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들을 소박하고 정겨운 풍경으로 그려내어,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너와 나 생명의 향기를 느끼게 해 준다. 02739-4937

김주일 기자 jsm@buddhista.com

김해 은하사에선 '달마야 놀자' 촬영중

12월 개봉 예정



조조쪽으로 분장한 박신양, 박상연 등이 부처님의 극락에 대해 논쟁을 벌이다 불상을 파손한 장면.

경남 김해 신어사 자락에 위치한 가락국 고찰 은하사에 조지 폭력배들이 물러와 고요한 산사를 뒤쫓기기 시작했다. 물론 실제 상황이 아니다. 지난달 4일 크랭크인된 영화 '달마야 놀자' 감독 박철환의 제작 현장 열기가 너무 진지하고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다. 영화사 씨네필드가 제작하는 '달마야 놀자'는 사고를 치고 암자로 피신한 조지 폭력배들과 그들로부터 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님들이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코미디다. 특히 제 목에서 말하는 '달마'는 스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화염경'과 '아제아제바라야제' 등 지금까지의 불교영화와 같은 엄숙한 분위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자연스런 웃음 속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인간애를 관객들에게 전달하려는 게 제작진의 의도다.

출연배우들도 화려하다. 주연인 박신양을 비롯해 김인문, 박상연, 정진영, 강성진, 김수로, 홍경인 등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만한

호화 배역진이다.

불자인 박철환 감독은 '90여 일동안 전국의 명찰을 돌아다닌 끝에 고려시대 수많은 고승대덕들이 수행정진한 유서깊은 고찰 은하사를 알게 됐다'며 "특히 근처에 펼쳐진 소나무숲이 절경이어서 촬영장소로 적합했다" 사찰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어 촬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달마야 놀자'는 9월말까지 모든 촬영을 마친 뒤 12월초에 개봉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jsm@buddhista.com

책살차 맛보세요!

하동 목암마을 9월 14~16일 전통 제조법 재현 '차 잔치'

'우리 전통 책살차를 아시나요?' 중국차와 국적 불명의 차가 넘쳐나는 가운데 우리 차 문화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 다인들이 '차 잔치'를 연다. 9월 14일~16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목암마을에서 펼쳐지는 '목암 책살차 잔치'가 바로 그것이다.

책살차란 작살차의 화개지역 사투리로, 우리 전통 발효차를 뜻한다. 책살차는 오래 전부터 쌍계사와 칠불선원 인근의 스님과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승

돼 온 차로, 이번에 목암마을 다인들이 전통제조법을 재현해 이를 알리기 위해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첫날인 14일 냉차 시음, 열탕 시음, 온탕 시음 등 책살차 시음회를 가질 예정이며, 15일에는 책살차 만들기 현장체험과 문화유적 답사, 저녁에는 다시·다아 다우 공연으로 꾸며진다. 16일에는 참가자와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가 벌어질 예정이다.

이번 책살차 재현과 잔치 준비에 한창인 박희준 씨(향기물찾는사람들 대표)는 "이번 책살차의 복원은 보이차, 우롱차 등 중국과 일본의 차에 못지않은 우리 전통 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23-8155 이은자 기자



김경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만해 한용운의 시집 <님의 침묵>은 본문에 해당하는 88편의 시와 앞뒤에 붙어있는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합쳐 모두 9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책을 펴서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첫 시 '님의 침묵'을 읽는데, 첫 문장부터 시작 서정이 물결처럼 밀려온다.

"님은 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갓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장나무 숲을 향하여 난 적은 길을 걸어서, 참어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 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서는 차디찬 피피이 되어서, 한숨의 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追憶은 나의 運命의 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까. 나는 항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 기울이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사랑도 사랑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칩니다.

그러나 이별을 슬레 없는 눈물의 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검증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종횡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갖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

한용운 '님의 침묵' (2)

信-解-行-證 기본구조 삼은 사랑의 증도가

니다. 제 곡조를 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침묵을 휘싸고 듭니다."

<님의 침묵 전래해설>을 쓴 송옥 고수는 이 시집 전체를 '사랑의 증도가(證道歌)'로 보았다. 말하자면 '선(禪)적 깨달음으로 가는 구도의 과정'을 시로 표현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위의 첫 시는 구도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해 스스로가 설악산 오세암에서 득도하여 오도승(悟道頌)을 남기고,

또한 강원도의 강사로서 대장경을 집대성하여 <불교대전>을 출간할 정도로 선교(禪敎)를 겸비한 대선사였던 점을 돌이켜 보면, 그가 원숙한 나이에 이르러 이 <사랑의 증도가>를 집필할 때 <화엄경>을 비롯한 모든 경전의 기본구조이며 구도의 보편적 과정인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먼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뜻을 이해하며, 또 그 이해한 바를 실천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널리 퍼는' 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님은 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갓습니다.'라는 첫 구절은 구도의 첫걸음인 신앙심의 본질을 드러내는 명구(名句)가 아닐 수 없다. 이 간절한 사모의 정은 '초발심'의 순수함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그리움만 일지 않는다면 언젠가 '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용운의 시가 절묘한 것은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정신의 경지가 가장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쓰여졌다는 사실이다. 구경각(究竟覺)을 맛본 것의 감정과 언어가 사랑하는 이의 감정과 언어와 같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비밀을 엿보게 해준다.

■문학평론가

수미산 같은 절
TIBET KAILASH

도솔산 개산 · 보현도량 창립 9주년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開山祖 · 法主 金河光德
住持 · 社主 松菴至元

456-88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실리 1178-1 전화 031-676-8700 전수 031-676-8704 E-mail doosansa@komet.net